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❺ 여산 혜원(廬山 慧遠)

▶ 한줄 요약
남방불교에서 정교분립을 실현시키고, 중국불교학에 있어서 초기 불성론인 법성론의 제창과 최초로 정토결사를 결성해 정토종 종조의 역할을 수행한 여산 혜원.



법성론 제창과 최초 정토결사 결성

유교를 바탕으로 한 보수 세력이 쿠데타로 조위(曹魏)를 멸하고, 손오(孫吳)와 유촉(劉蜀)을 정벌하여 다시 중국을 통일했지만, 황권의 권력싸움인 팔왕지란(八王之亂)이 발생하고, 그 후에 수십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50여 년의 짧은 역사로 멸하였고, 북방에는 다섯 소수민족[五胡: 匈奴·羯·鮮卑·氐·羌]이 세운 16국이 난립하였으며, 서진의 황실은 남하하여 지금의 남경(南京)인 건강(建康)을 수도로 하여 동진(東晋)을 세웠다. 이 시기를 '동진십육국'이라고 칭하는데, 남방의 동진이나 북방의 16국들은 모두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설정하면서 불교가 시대사조(時代思潮)를 담당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남방은 현학(玄學)과 결합한 불교가 유행했으며, 북방에는 중관반야학(中觀般若學)이 유행하게 된다. 그에 따라 남방불교의 특색을 '의리불학(義理佛學)', 북방불교를 '성공지학(性空之學)'으로 칭하며, 남방불교의 대표를 여산(廬山) 혜원(慧遠)으로, 북방불교의 대표를 구마라집(鳩摩羅什)으로 손꼽는다.

남방불교의 대표로서 혜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불교사상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혜원과 관련하여 언급할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만을 간추려서 논하고자 한다.

혜원(334~416)은 중국인 최초의 고승으로 평가받는 도안(道安)의 제자이다. 혜원의 전기는 〈고승전〉 권6, 〈출삼장기집〉 권15 등 다양한 문헌에 게재되어 있으며, 그의 행적과 사상 등을 언급한 전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속성은 가(賈)씨이며, 안문(鴈門)의 누번(樓煩: 현 山西省 原平市) 출신이다. 13살에 낙양(洛陽)으로 가서 유생(儒生)으로 공부하면서 육경(六經)과 노장(老莊)에 뛰어났다고 한다. 21세에 태행(太行)의 황산(黃山)에 도안이 사찰을 건립하고 법을 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반야경〉의 강의를 듣고 "유가와 도가 등의 구류(九流)는 모두 겨나 쭉정이일 뿐이다"고 탄식하고, 동생[慧持]과 함께 도안을 스승으로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에 선수학(禪數學)으로부터 대승 〈반야경〉에 이르기까지 통람하였는데, 이는 스승인 도안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기록에 따르면, 혜원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문하에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도안은 "불도(佛道)가 동쪽의 나라(中國)에 유포됨은 혜원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 후 부견(符堅)이 양양(襄陽)을 침공하여 도안을 장안(長安)으로 모셔가자, 혜원은 대중을 이끌고 남하(南下)하여 심양(潯陽: 현 江西省 九江市)에 이르러 여산(廬山)의 용천정사(龍泉精舍)에 머물렀지만, 대중이 많아지자 그곳의 자사(刺史) 환이(桓伊)가 여산의 동쪽에 승방과 불전을 건립하여 머물게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동림사(東林寺)이다. 혜원은 이 동림사에서 호계(虎谿)를 경계로 사문(寺門)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도교의 육수정(陸修靜) 등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 호계를 넘어서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는 '호계삼소(虎溪三笑)'의 전설이 전해진다. 이와 같이 동

남방불교서 정교분립 토대실현
禪·律 관련 새 불전 도입 역경
윤회와 '무아' 공존의 모순 탐구
중국불교 최초결사(백련) 결성
초기불성론 '법성론' 제창 업적

림사에 30여 년간 주석한 이후, 의희(義熙) 12년(416) 83세로 입적하였다.

혜원의 업적은 상당히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남방불교에서 정교분립(政教分立)을 실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진의 황실이 비록 남하하여 동진을 건국했지만, 당시의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황권에서는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또한 승가에서도 세속적 영리를 위하여 야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그 때문에 당시의 실권을 가진 환현(桓玄)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출가 사문이 국왕 등에게 예를 표하지 않는 점을 들어서 불교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혜원은 유명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5편을 찬술해 환현에게 보냈다. 환현은 이를 읽고 크게 감동하여 "사문은 능히 경전의 가르침을 진술할 수 있어야하고, 의리(義理)를 설법할 수 있거나, 혹은 금행(禁行: 戒行)을 가지런히 닦아 큰 교화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그만두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라. 오직 여산(廬山)만은 도덕이 있는 곳이니,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말라."(〈出三藏記集〉卷15)는 조



'호계삼소도' – 혜원은 동림사에서 30여 년간 머물며 호계를 경계로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어느 날, 찾아온 도연명과 육수정을 배웅하며 담소하다가 호계를 건너고 말았다. 다리를 건넜음을 깨닫고 함께 웃었다고 한다.

칙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부터 동림사를 포함한 여산은 일종의 정치적 '무풍지대'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왕조가 바뀌어도 지속되었다. 또한 이후의 남조(南朝)에서는 정권과 교권이 분립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북조(北朝)에서는 황제와 여래를 동일시하고, 나아가 '승관제도(僧官制度)'를 확립시키면서 불교를 황권 아래 제도적으로 복속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후의 중국 왕조는 모두 북방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철저하게 국가권력에 예속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이른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廢佛)이 모두 북방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이러한 정교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삼무일종'의 폐불에 있어서도 '여산'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혜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당시 남방에 선(禪), 율(律) 등의 불전이 부족함을 느끼고 제자인 법정(法淨), 법령(法領) 등을 파견하여 새로운 경전을 200여 부를 구하고, 그를 번역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혜원에 의하여 번역된 목록을 보자면 계율과 선수학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그의 스승인 도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혜원은 불교에서는 '윤회(輪廻)'를 제시하면서 또한 '무아(無我)'설을 제창하니, 과연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였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지금도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이 부딪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윤회의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숙세에 지은 업의 과보를 현세에 받는다는 것이 '윤회'를 통한 '업인과보' 설인데, 만약 윤회의 '주체아(主體我)'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업설 자체에 상당한 모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좋은 과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쁜 과보라면, 예를 들어,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전생에 진 빚을 현세에 갚으라는 것과 같은 상당히 억울한 논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형태로든지 윤회의 주체를 설정한다면, 표면적인 논리로는 합당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영원히 '윤회'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논리는 석존(釋尊)께서 시설하신 '무아설'과 '업설'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는 영원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혜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태원(太元) 16년(391)에 계빈(罽賓)의 사문 승가제바(僧伽提婆)가 심양에 이르자 혜원은 그를 청하여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과 〈삼법도론(三法度論)〉의 두 논서를 번역하게 하고, 그에 각각 서문을 찬술하였다. 혜원의 사상에 있어서 이 두 논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논서가 혜원이 윤회의 주체에 대한 해결로서 제시한 '법성론'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삼법도론〉은 독자계(犢子系) 현주부(賢胄部)에 속하는 논서로, 윤회의 주체로서 '승의아(勝義我)'를 주장하고 있다. 이로부터 혜원은 바로 이 '승의아'에 근거하여 〈명보응론(明報應論)〉, 〈삼보론(三報論)〉 등을 찬술하게 되고, 그 논술에서 '신불멸론(神不滅論)'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혜원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성론(法性論)'을 제창하게 된다. 이러한 법성론에 따라 혜원은 열반(涅槃)을 이른바 '명신절경(冥神絶境)'으로 설명하는데, 불멸하는 윤회의 주체인 '신(神)'이 외부의 경계(境界)를 끊고서 고요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이러한 견해는 도안의 본무종(本無宗)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현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논리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후 융안(隆安) 5년(401)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장안(長安)에 도착하자 혜원은 바로 서신을 보내어 '대승'의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구마라집은 그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한 답변을 보내고, 후인들이 그를 모아 정리하여 〈구마라집법사대의(鳩摩羅什法師大義)〉3권(大正藏45所收)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마라집이 장안에 도래한 시기(401)는 혜원의 68세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오류는 그의 문하에 있던 혜관(慧觀), 도생(道生) 등에 의하여 수정된다고 하겠다.

혜원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바로 정토의 결사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당시 동진의 상황은 이른바 누란지위(累卵之危)와 같았고, 북방에서는 소수민족들에 의하여 세워진 제국들에 의한 끊임없는 전란의 연속이었다. 그에 따라 혜원이 동림사에 주석하자 유유민(劉遺民), 주속지(周續之), 종병(宗炳) 등 당시 유명한 문인들이 은둔하고자 몰려들었고, 또한 산수시(山水詩)로 유명한 사령운(謝靈運)과 같은 이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혜원은 원흥(元興) 원년(402) 7월에 '연사(蓮社: 白蓮結社라고도 칭함)'를 결성하였는데, 위의 재가 거사들과 도생(道生), 혜예(慧叡), 서역으로부터 온 불태야사(佛馱耶舍) 등 모두 123명의 승속들이 참여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최초의 '결사'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백련결사는 원대(元代) 지대(至大) 원년(1308)에 황제의 명령으로 금지시켰지만, 우담 보도(優曇普度)가 〈여산련종보감(廬山蓮宗寶鑑)〉 10권을 찬술하여 황제에게 올려 황경(皇慶) 원년(1312)에 다시 재개되었고, 그 이후 수많은 왕조의 교체와 전란에도 단 한 차례의 중지됨이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산 혜원의 불법에 대한 이해에는 오류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스승인 도안과 같이 시대적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혜원이 행한 수많은 업적은 중국불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남방불교에서 정교분립을 실현시켰으며, 중국불교학에 있어서 초기 불성론인 법성론의 제창과 최초로 정토결사를 결성하여 정토종(淨土宗) 종조(宗祖)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